

군산 소형양배추 연구모임 최고품질 농산물단지 선정

꼬꼬마양배추 육성 기여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군산농업기술센터는 군산소형양배추 연구모임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진행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부분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 가운데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단지 중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단지를 농업전문가단 5명과 국민참여단 5명이 발표 심사해 최종적으로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로 지난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양배추의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재배초기에는 국내에서 생소한 양배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과 대만

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수출로 다시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육성하는데 기여했다.

채행석 군산농기센터소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된 소형양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소형 양배추 재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주)삼부자컴퍼니를 통해 일본으로 첫 수출했던 꼬꼬마양배추김치가 오는 16일 500박스(2.4톤)가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말가공제품인 꼬꼬마양배추죽도 10월 말에 1200박스가 수출될 예정이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전라매일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012면 지역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 최고품질 생산단지 인정

농촌진흥청 주관 심사 국무총리상 수상 쾌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진행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부분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 가운데 올 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단지 중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단지를 농업전문가단 5명과 국민참여단 5명이 발표 심사해 최종적으로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로 지난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양배추의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재배초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생소한 양배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과 대만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수출로 다시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육성하는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행석 농기센터소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된 소형양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소형양배추 재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상'

일반 양배추 3/1 크기 양배추 재배
대만 등 해외시장 개척·인지도 제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부문 등을 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단지 중에서 군산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양배추의 1/3



군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형 양배추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재배 초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생소한 양배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과 대만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 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해외 수출로 다시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육성하는데 기여했다.

채행석 농기센터소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된 소형양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소형양배추 재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주)삼부자컴퍼니를 통해 일본으로 첫 수출됐던 꼬꼬마양배추김치가 오는 16일 500박스(2.4톤)를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 또 분말가공제품인 꼬꼬마양배추죽도 10월 말에 1,200박스가 수출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전북도민일보

2021/10/12 화요일
006면 지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 '대상'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고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품종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확대에 기여한 작물 재배 단지를 대상으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발, 시상하고 있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증가와 건강 중시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양배추의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작은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과 대만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였다. 이 결과 해외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다시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육성하는데 성공,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행석 소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선정된 소형양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활성화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새만금일보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국무총리상 수상 쾌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진행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로 지난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모임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양배추의 3분의 1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재배초기에는 국내 소비자에게 생소한 양배추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과 대만에 수출을 추진해 해외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수출로 다시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육성하는데 기여했다.

/순정일 기자